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 일부지역 초등학생의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 조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김 선 아

2014년 2월

제주 일부지역 초등학생의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 조사

指導教授 申東範

金 宣 娥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2月

金宣娥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3年 2月



A Study on the Preference of Processed
Foods and Awareness on Food Nutrition
Label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ome Areas of Jeju

Seon-Ah Kim

(Supervised by professor Dong-Bum shi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4. 2.

Department of 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목 차	i
표 목 차	iii
국문요약	iv
I. 서론	1
II. 연구 배경	4
1. 아동기 식습관의 중요성	4
2. 가공식품 구매실태	6
3. 식품영양표시제도	7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9
1. 조사 대상 및 기간	9
2. 조사내용 및 방법	9
3. 조사자료 분석방법	12
IV. 연구결과 및 고찰	13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3
2. 간식섭취실태	16
3. 가공식품 구매실태 및 섭취현황	24
4. 식품영양표시에 관한 인식	33
5.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교육여부와 교육의 필요성	51
V. 요약 및 결론	52

참고문헌	55
Abstract	59
부 록	62

표 목 차

<표 1> 조사내용구성	10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13
<표 3> 조사대상자 부모의 일반사항	14
<표 4> 하루 간식 섭취 횟수	17
<표 5> 간식 섭취 시간대	19
<표 6> 간식 섭취 이유	21
<표 7> 즐겨먹는 간식	23
<표 8> 가공식품 선호도	25
<표 9> 성별에 따른 가공식품 구매(섭취)빈도	27
<표 10> 가공식품 구매(섭취)빈도	28
<표 11> 가공식품을 이용하는 이유	30
<표 12> 가공식품 구매 시 고려사항	32
<표 13> 식품표시 인식 여부	34
<표 14> 식품표시 확인여부	36
<표 15> 식품표시 확인 이유	38
<표 16> 식품표시 미확인 이유	40
<표 17> 영양표시 인식 여부	42
<표 18> 영양표시 확인 이유	44
<표 19> 영양표시 미확인 이유	46
<표 20> 영양표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48
<표 21> 영양표시에 관한 지식 정답률	50
<표 22> 식품영양표시 교육여부와 교육의 필요성	51

국문 요약

제주 일부지역 초등학생의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 조사

본 연구는 제주 일부지역 초등학생의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아 향후 가공식품 선택 시에 필요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소재하는 초등학생 5~6학년 학생 547명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의 75.9%가 ‘핵가족’이었고, 부모의 교육정도가 80.0% 이상 ‘대졸 이상’으로 고학력자였으며, 한 달 용돈은 ‘2만원 이상’이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루에 간식을 ‘1번’ 섭취 하였고, 간식을 섭취하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 43.1%, ‘습관적으로’ 13.9%, ‘영양보충을 위해’ 10.4%순으로 응답하였다.

3. 선호하는 가공식품은 ‘과일류’ 4.28, ‘아이스크림류’ 4.16, ‘분식류’ 4.11, ‘음료류’ 3.95, ‘라면류’ 3.92의 순이었으며, ‘사탕/초콜릿류’ 3.52로 가장 낮았다. ‘우유 및 유제품류’에서는 남학생 3.76, 여학생 3.59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가공식품을 이용하는 이유는 ‘맛이 좋아서’ 53.0%로 가장 높았고, ‘원하는 것 섭취 가능해서’도 17.0%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영양적인 면에서는 2.9%로 낮게 나타났다. 가공식품 구매 시 고려사항으로는 ‘맛’이 가장

높았고, ‘가격’, ‘유통기한’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식품표시 확인율은 77.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확인하는 이유로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51.9%로 가장 높았고,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생각 없이 그냥 구매하기 때문에’가 43.4%로 높게 나타났다.

5. 영양표시 인지도에서는 81.9%가 영양표시에 대해 알고 있었고,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이유에서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41.3%로 높았고,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영양표시에 관심이 없어서’가 42.3%로 높게 나타났다.

6.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신뢰도는 높았으나 이해도 및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고, 대부분의 학생이 식품영양표시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교육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학생이 80.0%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사회적, 가족적 환경의 변화로 초등학생이 직접 식품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구매자가 되었다. 식품영양표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식품영양표시에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주적인 소비 주체인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이고 즉흥적으로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반드시 식품영양표시를 확인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실천위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식품영양표시 교육이 잘 이루어져 학생들이 가공식품에 표기된 식품영양표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실생활에서 식품영양표시교육의 효용성은 크다고 본다.

I. 서론

학령기 아동의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영양 섭취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이 시기의 식습관은 학령기 뿐 아니라, 성인기의 식습관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학령기에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강조되고 있다(구복자 등, 2000). 이는 자아 개념과 자기주장이 확립되어 가는 학령기 시절부터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양애란, 2011).

초등학교 시기는 학교교육을 통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논리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이 증가되는 시기이며, 사춘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다양한 신체적·생리적 변화와 함께 빠른 속도로 성장·발달하게 되고, 기본적인 생활양식 습득과 더불어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아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양애란, 2011). 그러나 가공식품 및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의 이용이 빈번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쉽게 수용하게 되며, 맞벌이 가정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아동이 직접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으나, 자신의 영양과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유옥경 등, 2007).

최근 여성의 고학력과 직업의 전문화로 인해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취업한 어머니의 가사시간이 제한되고, 자녀의 간식을 가정에서 준비하던 과거와 달리 손쉽게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아동의 기호에 맞는 가공식품이 개발·생산되면서 초등학생의 식행동에도 변화가 생겼다(오승희 2010; 이기완 등, 2005).

여기에 학업비중이 큰 우리사회의 교육풍토로 인해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학원이나 방과 후 수업, 과외 등 사교육으로 가정에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학원가는 시간을 이용하여 분식점이나 편의점에서 분식류나 가공식품, 즉석식품 등을 간식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식행동의 변화로 아동들이 직접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식품선택 시 기호성과 광고의 영향을 받아 구입하기

쉬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박옥희 등, 2008).

시장의 확대와 요구로 인해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개발·생산되고 있어 식품은 이제 영양공급의 목적보다는 기호성이나 편리함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가공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공식품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가공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정보 파악이 필수조건이 된다(장순옥 등, 2008).

식품영양표시제이란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 즉 구성 성분, 중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사용방법, 영양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함으로써 생산자는 소비자가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공정한 거래 확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최근 들어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식생활과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건강이나 영양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제공되면서 식품영양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6년 5월 ‘어린이 먹거리 안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패스트푸드점이나 외식업체 등에서의 영양성분 표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0년까지 어린이와 부모들이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고(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2012년도에는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류와 음료류를 시작으로 201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당류와 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실태 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정하정, 2012).

우리나라는 1995년 영양표시제를 시작으로 2007년 12월 1일부터는 식품안전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고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패스트푸드 등 외식메뉴에도 영양정보 제공을 위한 영양표시가 시범 실시되었다. 패스트푸드란 ‘주문하면 곧 먹을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용기는 종이로 되어 있어 1번 쓰고 버리며, 조리도 오븐에서 데우는 정도로 간단하므로 소수의 인원으로 손님의 주문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에는 1970년대 들어와 간편하다는 장점과 젊은 층의 양식화

경향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간편성과 신속성을 이유로 대중화된 패스트 푸드는 영양지식이 부족한 학령기 아동들에게 영양불균형이 우려되며, 대체로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되어 소아비만으로 이어지기 쉽다(조정희, 2008).

따라서 식품영양표시가 실제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와 영양적 요구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 및 만성질환 등의 예방에 효율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식품영양표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식품영양표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정자용 등,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성장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 초등학생이 현명한 식품 구매활동을 통해서 올바른 식생활 태도와 영양지식의 바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영양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배경

1. 아동기 식습관의 중요성

아동기는 만 6~11세까지의 초등학생의 연령에 해당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발육이 왕성하여 사회성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아의식이 발달하는 단계로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음식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형성되는 때이므로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할 경우 편식으로 이어지기 쉽다. 영양 상태 및 성장발육은 가정, 경제, 사회, 문화적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영양의 불량이나 과다로 인해 건강에 장애가 오면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체위, 건강, 수명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윤금란, 2006). 아동들은 각자 고유의 식습관과 필요 영양소가 있으므로 여러 식품군의 음식을 골고루 접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이상선 등, 2008). 식품에 대한 경험은 식품 기호 및 식사행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생동안의 영양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강석아 등, 2004).

특히, 아동기는 유아기에 비해 식욕이 감소하여 좋아하는 식품만 섭취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양가 있는 음식과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여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과 에너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이상선, 2008).

최근에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어머니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로 편의주의 식생활의 증가로 전통 식습관은 감소되는 반면, high-fat, fast foods에 대한 아동들의 선호도 증가, 가공식품의 남용과 외식의 증가, 영양적으로 편중하는 식사를 하게 되어 영양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최현정 등, 2003). 또한 학령기 아동들은 자신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건강의 중요성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식품 선택에 있어 현명한 판단 없이 기호에 치중하게 되어 편식이 심해질 우려가 크다(김은경 등, 1998)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침 결식, 편식, 간식, 빨리 먹기, 채소편식 등의 여러 식습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이경혜 등, 2005).

아동기에 바람직한 식습관이 형성되면 성인기로 이어져 당뇨와 고혈압, 비만 등 성인기에 발병되는 만성질환의 유병율도 낮출 수 있다. 최근에는 무분별한 식습관으로 균형 잡힌 식품섭취가 어려워지면서 열량이 과잉 공급되어 소아비만 아동 중 40%, 청소년 비만 학생 중 70%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당뇨, 퇴행성 질환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는 학교 안팎의 어린이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업소는 제 4장 11조에 의하여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식품에는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하여 우수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균형 잡힌 영양 상태는 본능적인 식생활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양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식생활 실천과 같은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영양지식은 식생활 태도와 상관성이 있으며, 식생활 태도는 식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영양지식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심신의 균형 잡힌 발달과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손정민, 2011)

2. 가공식품 구매실태

아동기는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고 하교생활이 길어지면서 활동량이 증가되고 소모되는 열량 공급을 위해 간식섭취가 필요하다(조은아 등, 2010).

부모의 맞벌이와 학생들의 학원수업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간식 섭취가 어려워지면서 아동들은 직접 간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아동들이 직접 구매하는 간식은 쉽게 구입이 가능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며, 가공식품의 섭취가 지나치면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식습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강석아 등, 2004).

초등학생들의 가공식품 구매실태를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선택 기준이 강석아 등(2004)의 연구에서는 맛, 가격 순으로 나타났고, 민지은(2008)의 연구에서도 맛, 가격 순으로 나타났다. 천명숙(2010)의 연구에서도 맛이 좋은 것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맛과 가격이 가공식품을 구매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 나타났다.(유선정, 2011).

아동들은 영양과 가공식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화려한 포장이나 색상, 특이한 모양, 친근한 캐릭터 등으로 인해 식품에 호감을 갖기 쉽다. 또한, 실제로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 소규모 상점 등에서는 값싸고 질이 낮은 원료를 사용한 사탕, 초콜릿, 젤리 등 가공식품과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식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식품들을 간식으로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영양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을 형성하기 쉽다(강석아 등, 2004; 조순덕 등, 2008).

바쁜 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가공식품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공식품은 대체로 너무 많이 지방, 소금, 설탕을 함유하고 있고, 반면에 무기질, 심이섬유는 결핍되어 있으며, 식품첨가물 등의 사용으로 인해 영양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맹영선 등, 2002).

학령기 아동의 영양은 건강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 시기에 습득하는 식습관이야말로 평생건강에 기초가 된다. 따라서 무분별한 광고와 바른 정보를 구분하여 현명한 가공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올바른 식행동

함양을 위한 영양교육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오미란, 2005; 이지원 등 2009).

3. 식품영양표시제도

우리나라의 영양표시에 관한 기준은 1994년에 처음 도입하여 의무표시대상식품(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영양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의무대상 영양소(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을 규정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1994).

그 후 열량 등 33가지 영양성분에 대한 영양소 기준치를 제정하여 영양소 함량뿐만 아니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표시방법에 대한 대폭적인 제·개정을 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4).

2003년 5월에 영양표시 의무대상식품의 확대 및 면제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과자류 중 식빵 및 빵, 면류 중 숙면류, 유당면류, 호화 건면류 및 개량숙면류, 레포트 식품을 추가하였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하여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영양표시 의무대상식품이 되었다. 2005년도에는 영양표시 의무대상식품이 더욱 확대되어 과자류 중 식빵 및 빵류뿐만 아니라 케이크, 빵,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잼류에 까지 확대되었으며, 면류도 일부였던 것이 전 품목으로 확대되었고 음료류도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영양표시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2007년부터 영양성분의 의무표시성분은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이며,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들의 함량을 표기하도록 시행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2010년부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2008년 제정, 2009년 시행) 규정에 근거하여 패스트푸드 등 일부 외식메뉴에도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외식메뉴의 경우 메뉴 선택 시 영양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열량 등 영양성분 함량을 메뉴판 등 눈에 띄는 곳에 메뉴

명이나 가격과 유사한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홈페이지 등에서도 소비자가 메뉴 선택에 영양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박혜경, 2009). 외식메뉴의 영양표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에서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그밖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려는 조리·판매 식품이 대상 식품이다.

한국에서 시판중인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영양성분 표시 내용 중 표시 형식이나 제목, 식품 기준 중량 및 자료원의 표기 등에 대한 기준이나 영양소를 표시하는 순서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적혀있는 정보를 이해하거나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즉 표시위치도 일정하지 않고, 묶음 단위에는 표시가 되어 있으나 날개 포장에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표시양식이 서술형인 경우는 다른 내용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김정훈, 2002). 또한 함량이 표시된 영양소나 식품성분의 종류가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항목이나 섭취해야 할 비중이 크지 않은 항목들이 표기된 경우가 많았으며, 특정 영양소가 해당 제품에 들어 있다는 표기가 과장되어 사용된 것들이 많았다(김남희, 2001).

소비자들의 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의 표시기준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이나 활자 등에 대한 통일된 양식 및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품과 차별성을 두어 판매를 목적으로 허위 표시나 국민을 현혹시키는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품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가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모든 규정은 실제로 무의미한 일이 되기 때문에 단계적이며 연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김은정, 2002). 또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식품영양표시제도의 확립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가 생산자들의 제품 차별화에만 이용되어 일부 취약 계층의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된 유용한 영양정보를 여러 계층의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김옥선 외, 2005).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1.1 조사대상자의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의 초등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이들 학교의 5~6학년 남·여학생 5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5학년 초등학생 25명에게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보완 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560부를 배부하여 그 중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13부를 제외한 547부(97%)를 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1.2 조사기간

본 연구의 조사 기간은 2013년 10월 8일 ~ 2013년 10월 14일에 걸쳐 영양교사와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제주 일부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해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문지는 선행 연구들(박선정, 2007; 정하정, 2012; 박선정, 2007; 양시원, 2011)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만들어졌다. 조사 내용은 <표 1>과 같이 일반적 사항 6문항, 간식습관 4문항, 가공식품

구매실태 및 섭취현황 4문항, 식품표시에 관한 인식도 4문항, 영양표시에 관한 인식도 5문항,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견해 2문항으로 총 6개 분야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조사내용구성

조사항목	조사내용	문항 수
일반적 사항	성별, 가족형태,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직업, 일주일동안 다니는 학원 수, 한달 용돈	6
간식습관	하루 간식섭취 횟수, 간식을 먹는 시간대, 간식을 먹는 이유, 즐겨먹는 간식	4
가공식품 구매실태 및 섭취현황	가공식품의 선호도, 가공식품의 구매(섭취)빈도, 가공식품을 이용하는 이유, 식품구매 시 고려사항	4
식품표시 인식도	식품표시 인식여부, 식품표시 확인여부, 식품표시 확인이유, 식품표시 미확인 이유	4
영양표시 인식도	영양표시 인식여부, 영양표시 읽어본 이유, 영양표시 읽지 않은 이유, 영양표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과자포장지의 영양표시에 관한 지식조사	5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견해	식품영양표시 교육여부, 교육이나 홍보에 관한 필요여부	2
합계		25

2.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의 성별, 가족의 형태,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직업, 일주일동안 다니는 학원 수, 한 달 용돈에 관한 내용으로 총 6문항을 구성하였다.

2.2 간식습관 실태조사

하루 간식섭취 횟수, 간식을 먹는 시간대, 간식을 먹는 이유, 즐겨먹는 간식으로 총 4문항을 구성하였다.

2.3 가공식품 구매실태 및 섭취현황 조사

가공식품의 선호도, 가공식품의 섭취 횟수, 가공식품을 이용하는 이유, 가공식품구매 시 고려사항으로 총 4문항을 구성하였다.

2.4 식품표시 인식도 조사

식품표시 인식여부, 식품표시 확인여부, 식품표시 확인이유, 식품표시 미확인 이유로 총 4문항을 구성하였다.

2.5 영양표시 인식도 조사

영양표시를 읽어본 적이 있는지, 영양표시를 읽어본 이유, 영양표시를 읽지 않은 이유, 영양표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특정 포장지의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제시하여 4개의 문항에 대한 영양표시 지식정도 조사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6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견해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교육여부, 교육이나 홍보의 필요성으로 총 2문항을 구성하였다.

3. 조사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각 문항별 빈도수 및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라 Chi-square, t-test 분석을 실시하여 그룹 간 차이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는 총 547명이었으며, 그 중 ‘남학생’ 305명(55.8%), ‘여학생’ 242명(44.2%)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인 경우 415명(75.9%), ‘대가족’인 경우 96명(17.6%), ‘한부모가족’인 경우 28명(5.1%), ‘조부모가족’인 경우 8명(1.5%)으로 나타나 핵가족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주일동안 다니고 있는 학원 수는 ‘1개’ 262명(47.9%), ‘2개’ 146명(26.7%), ‘3개 이상’ 97명(17.7%), ‘다니지 않는다’는 42명(7.7%)로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은 ‘2만원 이상’이 295명(5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만원 미만’이 170명(31.1%), ‘1~2만원 미만’ 82명(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N=547

항 목	명(%)
성별	남학생 305(55.8)
	여학생 242(44.2)
가족형태	대가족 96(17.6)
	핵가족 415(75.9)
	한부모가족 28(5.1)
	조부모가족 8(1.5)
일주일동안 다니고 있는 학원 수	1개 262(47.9)
	2개 146(26.7)
	3개 이상 97(17.7)
	다니지 않는다 42(7.7)
한 달 용돈	1만원 미만 170(31.1)
	1~2만원 미만 82(15.0)
	2만원 이상 295(53.9)

1.2 조사대상자 부모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 부모의 일반사항은 <표 3>에 나타냈다. 부모의 교육정도는 아버지의 경우 ‘고졸 이하’ 95명(17.4%), ‘대졸 이상’ 452명(82.6%)으로 대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 이상이 전체의 82.6%로 대부분이 고학력자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고졸 이하’ 100명(18.3%), ‘대졸 이상’ 447명(81.7%)으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대졸 이상이 8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학력자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직업으로는 아버지의 경우 ‘사무직’에 종사가 199명(36.4%), ‘생산직/기능직’의 경우 145명(26.5%), ‘서비스직’의 경우 108명(19.7%), ‘영업직/판매직’이 47명(8.6%), ‘전문직’ 종사는 31명(5.7%)으로 나타났으며 ‘무직’은 17명(3.1%)을 차지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서비스직’에 종사가 139명(25.4%), ‘사무직’의 경우 124명(22.7%), ‘전업주부’의 경우 122명(22.3%), ‘전문직’이 67명(12.2%), ‘영업직/판매직’의 종사는 63명(11.5%), ‘생산직/기능직’ 종사는 32명(5.9%)으로 서비스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전업주부가 아닌 직업을 가진 경우가 전체의 1/2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보면 여성

들의 사회진출과 자아실현의 기회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 조사대상자 부모의 일반사항

N=547

항 목	명(%)	
아버지 교육정도	고졸 이하	95(17.4)
	대졸 이상	452(82.6)
어머니 교육정도	고졸 이하	100(18.3)
	대졸 이상	447(81.7)
아버지 직업	생산직, 기능직	145(26.5)
	서비스직	108(19.7)
	영업직, 판매직	47(8.6)
	사무직	199(36.4)
	전문직	31(5.7)
	무직	17(3.1)
어머니 직업	생산직, 기능직	32(5.9)
	서비스직	139(25.4)
	영업직, 판매직	63(11.5)
	사무직	124(22.7)
	전문직	67(12.2)
	전업주부	122(22.3)

2. 간식섭취실태

2.1 하루 간식 섭취 횟수

하루 간식 섭취 횟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성별($p < 0.05$), 한 달 용돈($p <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다른 변수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하루 1회’가 236명(4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루 2회’ 125명(22.9%), ‘일정하지 않다’가 91명(16.6%), ‘하루 3회 이상’이 50명(9.1%), ‘거의 안 먹는다’ 45명(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2005)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보면 7세~12세의 하루 간식 섭취 횟수는 ‘하루 1회’가 4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하루 2회’ 33.5%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하루 1회’의 경우 남학생 140명(45.9%), 여학생 96명(39.7%)으로 나타나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달 용돈으로 보면 용돈이 많을수록 간식 섭취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숙경(2010)의 문헌에서 ‘하루 1회’가 43.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를 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하루 1회 간식을 섭취함을 알 수 있다.

<표 4> 하루 간식 섭취 횟수

		N(%)					
항 목		거의 안먹는다	1회	2회	3회 이상	일정하지 않다	χ^2 -value
성별	남학생 (n=305)	29(9.5)	140(45.9)	67(22.0)	31(10.2)	38(12.4)	10.847*
	여학생 (n=242)	16(6.6)	96(39.7)	58(24.0)	19(7.9)	53(21.8)	
아버지 교육정도	고졸 이하 (n=95)	7(7.4)	38(40.0)	19(20.0)	11(11.6)	20(21.0)	2.871
	대졸 이상 (n=452)	38(8.4)	198(43.8)	106(23.5)	39(8.6)	71(15.7)	
어머니 교육정도	고졸 이하 (n=100)	8(8.0)	44(44.0)	22(22.0)	8(8.0)	18(18.0)	0.378
	대졸 이상 (n=447)	37(8.3)	192(43.0)	103(23.0)	42(9.4)	73(16.3)	
한 달 용돈	1만원 미만 (n=170)	19(11.2)	86(50.6)	40(23.5)	7(4.1)	18(10.6)	21.296*
	1~2만원 미만 (n=82)	7(8.5)	38(46.3)	16(19.5)	9(11.0)	12(14.7)	
	2만원 이상 (n=295)	19(6.4)	112(38.0)	69(23.4)	34(11.5)	61(20.7)	
전체 (n=547)		45(8.3)	236(43.1)	125(22.9)	50(9.1)	91(16.6)	

* $p < 0.05$

2.2 간식 섭취 시간대

간식 섭취 시간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성별($p < 0.05$), 아버지 교육정도($p <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원가기 전’이 190명(34.7%)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저녁에 야식으로’가 146명(26.7%), ‘학원마치고 집에 가기 전’이 111명(2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 ‘학원가기 전’ 100명(32.8%), ‘저녁에 야식으로’ 94명(30.8%), ‘학원마치고 집에 가기 전’ 51명(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학원가기 전’ 90명(37.2%), ‘학원마치고 집에 가기 전’ 60명(24.8%), ‘저녁에 야식으로’ 52명(2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녁에 야식으로 간식하는 경우가 남학생 94명(30.8%), 여학생 52명(21.5%)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외모의 고민이 여학생에 비해 적어 야식의 빈도가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아버지 교육정도로 보면 ‘대졸 이상’의 경우 학교에서 간식을 먹는 것보다 학원가기 전, 학원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간식을 섭취 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고졸 이하’의 경우 저녁에 야식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간식을 주로 먹는 시간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의 190명(34.7%)이 ‘학원가기 전’인 것으로 보아 학교 점심식사 이후 바쁜 학원 일정으로 인해 저녁식사를 하기까지의 배고픔을 매우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간식 섭취 시간대

		N(%)						
항 목		아침등교 시간	점심시간	학원가기 전	학원 마치고 집에 가기 전	저녁에 야식으로	기타	χ^2 -value
성별	남학생 (n=305)	8(2.6)	26(8.5)	100(32.8)	51(16.7)	94(30.8)	26(8.6)	13.110*
	여학생 (n=242)	5(2.1)	11(4.5)	90(37.2)	60(24.8)	52(21.5)	24(9.9)	
아버지 교육정도	고졸 이하 (n=95)	3(3.2)	12(12.6)	26(27.4)	13(13.7)	33(34.7)	8(8.4)	13.270*
	대졸 이상 (n=452)	10(2.2)	25(5.5)	164(36.3)	98(21.7)	113(25.0)	42(9.3)	
어머니 교육정도	고졸 이하 (n=100)	4(4.0)	6(6.0)	27(27.0)	15(15.0)	36(36.0)	12(12.0)	10.327
	대졸 이상 (n=447)	9(2.0)	31(6.9)	163(36.5)	96(21.5)	110(24.6)	38(8.5)	
한 달 용돈	1만원 미만 (n=170)	4(2.4)	11(6.5)	60(35.3)	39(22.9)	42(24.7)	14(8.2)	9.362
	1~2만원 미만 (n=82)	2(2.4)	7(8.5)	25(30.5)	20(24.4)	16(19.6)	12(14.6)	
	2만원 이상 (n=295)	7(2.5)	19(6.4)	105(35.6)	52(17.6)	88(29.8)	24(8.1)	
전체 (n=547)		13(2.4)	37(6.8)	190(34.7)	111(20.3)	146(26.7)	50(9.1)	

* $p < 0.05$

2.3 간식 섭취 이유

간식을 섭취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배가 고파서’ 간식을 먹는 학생이 393명(71.9%)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남학생 218명(71.5%), 여학생 175명(72.3%)으로 남·여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아버지 교육정도에서는 대졸 이상이 ‘배가 고파서’ 327명(72.3%), 어머니 교육정도에서도 대졸 이상이 ‘배가 고파서’ 323명(72.3%)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리고 학생들의 용돈에서는 1만원 미만의 경우 ‘배가 고파서’ 128명(75.2%)으로 높게 나타났다. 양시원(2011)의 연구에서 ‘배가 고파서’를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간식 섭취는 많은 활동량에 따른 에너지 소비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 경기 북부지역 중학생의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이해 및 인지도와 이용실태를 연구한 박연정(2008)의 연구에서 간식을 사먹는 이유로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서, 심심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순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표 6> 간식 섭취 이유

		N(%)					
항 목	배가 고파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습관 적으로	영양 보충을 위해	스트레스 풀기위해	기타	
성별	남학생 (n=305)	218(71.5)	1(0.3)	43(14.0)	34(11.2)	3(1.0)	6(2.0)
	여학생 (n=242)	175(72.3)	4(1.7)	33(13.6)	23(9.5)	6(2.5)	1(0.4)
아버지 교육정도	고졸 이하 (n=95)	66(69.5)	1(1.1)	14(14.6)	12(12.6)	1(1.1)	1(1.1)
	대졸 이상 (n=452)	327(72.3)	4(0.9)	62(13.7)	45(10.0)	8(1.8)	6(1.3)
어머니 교육정도	고졸 이하 (n=100)	70(70.0)	0(0.0)	17(17.0)	11(11.0)	1(1.0)	1(1.0)
	대졸 이상 (n=447)	323(72.3)	5(1.1)	59(13.2)	46(10.3)	8(1.8)	6(1.3)
한 달 용돈	1만원 미만 (n=170)	128(75.2)	2(1.2)	21(12.4)	16(9.4)	2(1.2)	1(0.6)
	1~2만원 미만 (n=82)	56(68.4)	1(1.2)	12(14.5)	11(13.5)	1(1.2)	1(1.2)
	2만원 이상 (n=295)	209(70.8)	2(0.7)	43(14.6)	30(10.2)	6(2.0)	5(1.7)
전체 (n=547)	393(71.9)	5(0.9)	76(13.9)	57(10.4)	9(1.6)	7(1.3)	

2.4 즐겨먹는 간식

평소 간식을 사 먹을 때 즐겨먹는 가공식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평소 간식을 사 먹을 때 즐겨먹는 가공식품에 대한 항목은 다중 응답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과자류’ 214명(14.8%), ‘분식류’ 185명(12.8%), ‘과일류’ 176명(12.2%), ‘아이스크림’과 ‘라면’이 각각 138명(9.5%), ‘음료’ 135명(9.3%), ‘우유 및 유제품’ 114명(7.9%), ‘빵·케이크’ 104명(7.2%), ‘즉석식품’ 78명(5.4%), ‘사탕/초콜릿’ 73명(5.0%), ‘패스트푸드’ 53명(3.7%), ‘차류’ 39명(2.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의 일반적 사향에 따른 빈도 차이를 파악한 결과, 성별로는 남학생들은 ‘라면’이, 여학생들은 ‘과일류’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승민(2011)의 경남지역 중학생의 간식 선호식품의 조사에서 아이스크림/빙과류가 가장 높았으며, 떡볶이, 샌드위치/햄버거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과자류를 가장 즐겨 먹는 식품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나이가 타 연구에 비해 어리다는 점이 선호도에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박세진(2011)의 대구시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과일·과일주스’가 233명(28%)로 가장 많았으며 ‘우유 및 유제품’ 226명(27.2%), ‘빵·케이크’ 165명(19.9%), ‘과자류’ 105명(12.6%), ‘분식류’ 42명(5.1%), ‘아이스크림’ 6명(0.7%)로 나와 본 연구와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자녀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의 자녀의 간식 가공식품 선호도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 건강영양조사(2005)에서는 7~12세에 자주 섭취하는 간식의 종류로 과자 및 스낵류 42.0%, 우유 및 유제품 21.5%, 과일 및 과일주스 12.8%, 빵·케이크 10.0%로 보고되었다.

<표 7> 즐겨먹는 간식

항 목 ¹⁾	N(%)		
	전체 (n=1447)	성별	
		남학생 (n=768)	여학생 (n=679)
빵, 케이크	104(7.2)	61(7.9)	43(6.4)
과자류	214(14.8)	111(14.5)	103(15.2)
즉석식품	78(5.4)	44(5.7)	34(5.0)
아이스크림	138(9.5)	70(9.1)	68(10.0)
과일류	176(12.2)	84(10.9)	92(13.5)
우유 및 유제품	114(7.9)	63(8.2)	51(7.5)
분식류	185(12.8)	102(13.3)	83(12.2)
사탕, 초콜릿	73(5.0)	32(4.2)	41(6.0)
음료류	135(9.3)	72(9.4)	63(9.3)
라면	138(9.5)	81(10.5)	57(8.4)
차류	39(2.7)	16(2.1)	23(3.4)
패스트푸드	53(3.7)	32(4.2)	21(3.1)

1) 중복응답

3. 가공식품 구매실태 및 섭취현황

3.1 가공식품의 선호도

가공식품의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유 및 유제품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표 8>. 점수는 ‘매우 좋아함’ 5점, ‘좋아함’ 4점, ‘보통’ 3점, ‘싫어함’ 2점, ‘매우 싫어함’ 1점으로 부여하였다. 성별에 따른 가공식품의 선호도는 ‘과일류’가 남학생·여학생 모두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빵/케이크’는 3.74±0.91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3.69±0.95, 여학생 3.80±0.86, ‘과자류’는 전체 3.82±0.88이며 남학생 3.77±0.90, 여학생 3.88±0.86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즉석식품’에서는 전체 3.79±0.92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3.78±0.89, 여학생 3.80±0.94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아이스크림’은 전체 4.16±0.79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4.14±0.81, 여학생 4.19±0.76, ‘과일류’는 전체 4.28±0.86이며 남학생, 4.26±0.89, 여학생 4.31±0.82, ‘우유 및 유제품’은 전체 3.69±1.02 중 남학생 3.76±1.00, 여학생 3.59±1.03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특히 키에 관심이 많고 많이 자라는 시기라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분식류’에서는 전체 4.11±0.83로 남학생 4.07±0.86, 여학생 4.17±0.79로 나타났으며, ‘사탕/초콜릿’은 전체 3.52±1.12, 남학생 3.45±1.17, 여학생 3.62±1.06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음료’는 전체 3.95±0.92, 남학생 3.96±0.96, 여학생 3.93±0.86이며, ‘라면’은 전체 3.92±0.95, 남학생 3.98±0.95, 여학생 3.83±0.95로 나타났다. ‘차류’에서는 전체 3.62±0.98, 남학생 3.60±1.04, 여학생 3.64±0.90으로 나타났고, ‘패스트푸드’는 전체 3.84±1.02, 남학생 3.90±1.03, 여학생 3.76±1.01로 나타나 이 역시 유의적인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서울 일부지역 중학생들의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확인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를 한 류경아(2008)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음료류의 선호도가 높고, 여학생이 즉석식품의 선호도가 높았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8> 가공식품 선호도

항 목 ¹⁾	Mean±SD			
	전체 (n=547)	성별		t-value
		남학생 (n=305)	여학생 (n=242)	
빵, 케이크	3.74±0.91	3.69±0.95	3.80±0.86	-1.380
과자류	3.82±0.88	3.77±0.90	3.88±0.86	-1.536
즉석식품	3.79±0.92	3.78±0.89	3.80±0.94	-0.228
아이스크림	4.16±0.79	4.14±0.81	4.19±0.76	-0.722
과일류	4.28±0.86	4.26±0.89	4.31±0.82	-0.740
우유 및 유제품	3.69±1.02	3.76±1.00	3.59±1.03	2.024 *
분식류	4.11±0.83	4.07±0.86	4.17±0.79	-1.336
사탕, 초콜릿	3.52±1.12	3.45±1.17	3.62±1.06	-1.716
음료류	3.95±0.92	3.96±0.96	3.93±0.86	0.442
라면	3.92±0.95	3.98±0.95	3.83±0.95	1.820
차류	3.62±0.98	3.60±1.04	3.64±0.90	-0.404
패스트푸드	3.84±1.02	3.90±1.03	3.76±1.01	1.478

* $p < 0.05$

1) 선호도 : 매우 싫어함(1), 싫어함(2), 보통(3), 좋아함(4), 매우 좋아함(5)

3.2 가공식품의 구매(섭취)빈도

가공식품의 구매(섭취)빈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가공식품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고 그 외의 가공식품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과자류($p<0.05$), 과일류($p<0.0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과자류의 경우 전체 186명(34.7%)으로 '주 1~2회' 섭취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중 남학생 102명(33.5%), 여학생 84명(34.8%)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주 섭취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2009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과자류의 트랜스지방 등 함량 조사보고서를 보면 수입과자에 비해 국산 제품에서는 트랜스 지방의 저감화가 이루어졌지만 포화지방은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제과점 과자에서 포화지방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08년 어린이 과자류의 영양 및 표시실태 보고서에서는 과자류의 지방,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함량 저감화와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과일류의 경우 '거의 매일 먹는다' 163명(29.8%), '주 1~2회'가 120명(21.9%), '주 3~4회' 107명(19.6%)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일류는 '남학생 73명(23.9%), 여학생 90명(37.2%)'가 '거의 매일 먹는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성별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의 가공식품 구매(섭취)는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류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양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가공식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공식품의 올바른 선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9> 성별에 따른 가공식품 구매(섭취)빈도

항 목	전체 (n=547)	성별		N(%)	χ^2 -value
		남학생 (n=305)	여학생 (n=242)		
		과자류			
매일	37(6.8)	20(6.6)	17(7.0)	14.143*	
주3~4회	85(15.5)	37(12.1)	48(19.8)		
주1~2회	186(34.1)	102(33.5)	84(34.8)		
월2~3회	102(18.6)	55(18.0)	47(19.4)		
월1회 이하	79(14.4)	48(15.7)	31(12.8)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	58(10.6)	43(14.1)	15(6.2)		
과일류					
매일	163(29.8)	73(23.9)	90(37.2)	17.730**	
주3~4회	107(19.6)	65(21.3)	42(17.4)		
주1~2회	120(21.8)	64(21.0)	56(23.1)		
월2~3회	89(16.3)	54(17.7)	35(14.5)		
월1회 이하	36(6.6)	25(8.2)	11(4.5)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	32(5.9)	24(7.9)	8(3.3)		

* $p < 0.05$, ** $p < 0.01$

<표 10> 가공식품 구매(섭취)빈도

N=547

항 목	매일	주3~4회	주1~2회	월2~3회	월 1회 이하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
빵, 케익류	7(1.3) ¹⁾	40(7.3)	139(25.4)	117(21.4)	109(19.9)	135(24.7)
즉석식품류	12(2.2)	51(9.3)	161(29.4)	134(24.5)	83(15.2)	106(19.4)
아이스크림류	49(9.0)	81(14.8)	173(31.6)	118(21.6)	63(11.5)	63(11.5)
우유 및 유제품류	274(50.1)	68(12.4)	96(17.5)	41(7.5)	36(6.6)	32(5.9)
분식류	56(10.2)	73(13.3)	163(29.9)	109(19.9)	92(16.8)	54(9.9)
사탕, 초콜릿류	39(7.1)	41(7.5)	155(28.3)	96(17.6)	82(15.0)	134(24.5)
음료류	79(14.4)	84(15.4)	149(27.2)	117(21.4)	65(11.9)	53(9.7)
라면류	37(6.8)	55(10.1)	202(36.8)	116(21.2)	84(15.4)	53(9.7)
차류	21(3.8)	42(7.8)	100(18.3)	126(23.0)	114(20.8)	144(26.3)
패스트푸드류	13(2.4)	28(5.1)	93(17.0)	146(26.7)	136(24.9)	131(23.9)

1) 숫자는 빈도를 나타냄, ()는 %를 나타냄

3.3 가공식품을 이용하는 이유

가공식품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전체적으로 ‘맛이 좋아서’ 291명(53.0%)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본인이 원하는 것 섭취 가능’이 93명(17.0%), ‘시간 절약’ 43명(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소희(1999), 김동순(2001)연구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흔희(2005)의 연구와 같이 맛이 영양보다 우선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알맞은 가공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제고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부산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김나영 등(2009)의 연구에서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로 초등학생은 54.5%가 ‘맛있어서’라고 응답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11> 가공식품을 이용하는 이유

		N(%)								
항 목	가격 저렴	구입 방법 간편	저장 및 보관 편리	맛이 좋아서	영양 우수	부모님이 만들어 주지 않아서	본인이 원하는것 섭취가능	시간 절약	기타	
성별	남학생 (n=305)	13(4.3)	21(6.9)	17(5.6)	157(51.5)	10(3.1)	12(3.9)	45(14.8)	24(7.9)	6(2.0)
	여학생 (n=242)	7(2.9)	15(6.2)	7(2.9)	134(55.4)	4(1.7)	7(2.9)	48(19.8)	19(7.9)	1(0.3)
아버지 교육정도	고졸 이하 (n=95)	2(2.1)	3(3.2)	3(3.2)	53(55.7)	2(2.1)	3(3.2)	19(20.0)	8(8.4)	2(2.1)
	대졸 이상 (n=452)	18(4.0)	33(7.3)	21(4.6)	238(52.7)	12(2.7)	16(3.5)	74(16.4)	35(7.7)	5(1.1)
어머니 교육정도	고졸 이하 (n=100)	7(7.0)	1(1.0)	5(5.0)	57(57.0)	3(3.0)	1(1.0)	17(17.0)	6(6.0)	3(3.0)
	대졸 이상 (n=447)	13(2.9)	35(7.8)	19(4.3)	234(52.3)	11(2.5)	18(4.0)	76(17.0)	37(8.3)	4(0.9)
한 달 용돈	1만원 미만 (n=170)	6(3.5)	9(5.3)	9(5.3)	90(52.9)	3(1.8)	10(5.9)	28(16.5)	12(7.0)	3(1.8)
	1~2만원 미만 (n=82)	3(3.7)	3(3.7)	4(4.9)	47(57.3)	5(6.1)	1(1.2)	10(12.2)	7(8.5)	2(2.4)
	2만원 이상 (n=295)	11(3.7)	24(8.1)	11(3.7)	154(52.2)	6(2.0)	8(2.7)	55(18.6)	24(8.1)	2(0.9)
전체 (n=547)	20(3.6)	36(6.5)	24(4.4)	291(53.0)	16(2.9)	19(3.5)	93(17.0)	43(7.8)	7(1.3)	

3.5 가공식품 구매 시 고려사항

가공식품 구매 시 고려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2>와 같다. 외관/모양 ($p<0.05$), 가격($p<0.05$), 제조회사명($p<0.05$), 광고($p<0.05$)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고려 항목별로 살펴보면 ‘반드시 확인 한다’ 5점, ‘확인 한다’ 4점, ‘가끔 확인 한다’ 3점, ‘확인하지 않는다’ 2점,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1점으로 부여하였다. 항목별 전체 평균을 보면 맛(4.28 ± 0.85), 가격(4.27 ± 0.94)이 가장 큰 고려사항으로 나타났고, 유통기한(4.04 ± 1.07), 외관/모양(3.39 ± 1.11), 원산지(3.22 ± 1.18), 영양(3.18 ± 1.10), 제조회사명(2.65 ± 1.21), 광고(2.54 ±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민지은(2008)의 연구에서도 맛, 가격, 유통기한 순으로 나타났다. 현선미 등(2007)의 연구에서도 맛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박옥희 등(2008)의 연구에서도 56.9%의 아동이 맛, 그 다음은 가격 34.2% 순이었고 영양은 7.2%로 낮게 나타났다. 강연호(2008)의 연구에서도 맛, 가격, 유통기한으로 나타나 초등학생들은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영양보다 맛이나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양’에 대한 고려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아직도 영양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필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외관(모양)의 경우 남학생(3.31 ± 1.16)과 여학생(3.50 ± 1.04)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관(모양)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양시원(2011)의 전북지역 고등학생의 간식섭취실태와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관(모양)을 더 중시하는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가공식품의 외관(모양), 가격, 제조회사명, 광고로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의 광고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순옥 등(2008)의 연구에서는 교육 전 맛(37.0%)과 영양표시(6.2%)로 응답하였지만, 교육 후에는 영양표시(30.9%)와 맛(23.5%)을 응답하여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학생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식습관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로 균형 잡힌 영양공급의 필요성과 현명한 가공식품 구매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12> 가공식품 구매 시 고려사항

항 목 ¹⁾	Mean±SD			
	전체 (n=547)	성별		t-value
		남학생 (n=305)	여학생 (n=242)	
영양	3.18±1.10	3.23±1.16	3.12±1.01	1.165
맛	4.28±0.85	4.27±0.90	4.30±0.78	-0.397
외관(모양)	3.39±1.11	3.31±1.16	3.50±1.04	-1.889*
가격	4.27±0.94	4.20±1.02	4.36±0.82	-2.024*
원산지	3.22±1.18	3.16±1.23	3.30±1.11	-1.345
유통기한	4.04±1.07	3.99±1.10	4.12±1.03	-1.378
제조회사명	2.65±1.21	2.54±1.20	2.79±1.21	-2.412*
광고	2.54±1.15	2.41±1.15	2.71±1.13	-3.084*

* $p < 0.05$

1) 5점 척도 :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1점), 확인하지 않는다(2점), 가끔 확인 한다(3점), 확인 한다(4점), 반드시 확인 한다(5점)

4. 식품영양표시에 관한 인식

4.1 식품표시 인식 여부

학생들이 가공식품 포장지의 '식품표시'를 인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것은 <표 1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성별($p <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다른 변수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식품표시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의 수가 407명(74.4%)으로 나온 반면 '알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140명(25.6%)으로 나타났다. 식품표시를 '알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 중 남학생이 91명(29.8%), 여학생이 49명(20.2%)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 식품표시 인식 여부

항 목		예	아니오	N(%)
				χ^2 -value
성별	남학생 (n=305)	214(70.2)	91(29.8)	6.514**
	여학생 (n=242)	193(79.8)	49(20.2)	
아버지 교육정도	고졸 이하 (n=95)	69(72.6)	26(27.4)	0.190
	대졸 이상 (n=452)	338(74.8)	114(25.2)	
어머니 교육정도	고졸 이하 (n=100)	73(73.0)	27(27.0)	0.127
	대졸 이상 (n=447)	334(74.7)	113(25.3)	
한 달 용돈	1만원 미만 (n=170)	129(75.9)	41(24.1)	0.306
	1~2만원 미만 (n=82)	61(74.4)	21(25.6)	
	2만원 이상 (n=295)	217(73.6)	78(26.4)	
전체 (n=547)		407(74.4)	140(25.6)	

** $p < 0.01$

4.2 식품표시 확인 여부

식품표시 확인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아버지 교육정도($p <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다른 변수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식품표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식품표시의 내용을 제시한 다음,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겉포장에 이러한 식품표시 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가를 질문하였을 때, ‘확인 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77.0%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동순(2001)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51.3%가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보다 높은 확인율을 나타냈다. 이는 그동안의 식생활 향상으로 인해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한 식품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매스컴을 통한 홍보 효과로 식생활에 대한 지식과 의식수준이 과거 5~6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아버지 교육정도의 경우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정도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황경아(201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교육정도에 따라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경우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4> 식품표시 확인여부

		N(%)				
항 목		반드시 확인	자주 확인	가끔 확인	전혀 확인하지 않음	χ^2 -value
성별	남학생 (n=305)	44(14.4)	116(38.0)	70(23.0)	75(24.6)	5.573
	여학생 (n=242)	36(14.9)	100(41.3)	66(27.3)	40(16.5)	
아버지 교육정도	고졸 이하 (n=95)	14(14.7)	25(26.3)	30(31.6)	26(27.4)	9.340*
	대졸 이상 (n=452)	66(14.5)	191(42.3)	106(23.5)	89(19.7)	
어머니 교육정도	고졸 이하 (n=100)	11(11.0)	36(36.0)	26(26.0)	27(27.0)	3.619
	대졸 이상 (n=447)	69(15.4)	180(40.3)	110(24.6)	88(19.7)	
한 달 용돈	1만원 미만 (n=170)	27(15.9)	68(40.0)	39(22.9)	36(21.2)	2.434
	1~2만원 미만 (n=82)	10(12.2)	29(35.4)	22(26.8)	21(25.6)	
	2만원 이상 (n=295)	43(14.6)	119(40.3)	75(25.4)	58(19.7)	
전체 (n=547)		80(12.6)	216(39.5)	136(24.9)	115(21.0)	

* $p < 0.05$

4.3 식품표시 확인 이유

식품표시 확인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5>와 같다. 전체적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224명(51.9%)이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67명(15.5%), ‘가격, 중량 등 다른 회사의 제품과 비교하기 위해서’ 60명(13.9%), ‘조리방법 확인하기 위해서’ 42명(9.7%), ‘원산지 확인하기 위해서’ 39명(9.0%)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동순(2001)의 연구에서 중학생들이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이유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흔희(2005)의 연구에서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위해’가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식품표시를 통해서 영양정보를 구하기보다는 식품의 안전성을 알아보려고 하는 뜻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영양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흔희(2005)의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1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순위에서 ‘가격, 중량, 먹는 방법 조리방법을 알기 위해서’의 순위가 높고, ‘영양소가 들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8.8%로 비율이 낮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5.5%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양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식품표시 확인 이유

		N(%)				
항 목	유통기한 확인	영양소 확인	가격, 중량 등 타회사와 비교	원산지 확인	조리방법 확인	
성별	남학생 (n=230)	119(51.7)	37(16.1)	32(13.9)	18(7.8)	24(10.5)
	여학생 (n=202)	105(52.0)	30(14.9)	28(13.9)	21(10.3)	18(8.9)
아버지 교육정도	고졸 이하 (n=69)	33(47.9)	11(15.9)	11(15.9)	9(13.0)	5(7.3)
	대졸 이상 (n=363)	191(52.6)	56(15.4)	49(13.5)	30(8.3)	37(10.2)
어머니 교육정도	고졸 이하 (n=73)	43(58.9)	10(13.7)	12(16.4)	4(5.5)	4(5.5)
	대졸 이상 (n=359)	181(50.4)	57(15.9)	48(13.4)	35(9.7)	38(10.6)
한 달 용돈	1만원 미만 (n=134)	67(50.0)	22(16.4)	22(16.4)	13(9.7)	10(7.5)
	1~2만원 미만 (n=61)	39(63.9)	7(11.6)	6(9.8)	3(4.9)	6(9.8)
	2만원 이상 (n=237)	118(49.8)	38(16.0)	32(13.5)	23(9.7)	26(11.0)
전체 (n=432)	224(51.9)	67(15.5)	60(13.9)	39(9.0)	42(9.7)	

4.4 식품표시 미확인 이유

식품표시 미확인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6>과 같다. 전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매 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50명(4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식품표시에 관심이 없다’ 41명(35.7%), ‘글자가 작고 읽기 어렵다’ 14명(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선성(2007)연구에서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매 한다’가 가장 많아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올바른 가공식품 구매를 위한 정보원으로서 식품표시 내용을 들 수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 생각할 때, 식품표시는 가공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공식품 구매 시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높으므로 교육을 통해 식품표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며, 반드시 식품표시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16> 식품표시 미확인 이유

		N(%)				
항 목		생각없이 그냥구매	이해하기 어려움	글자가 작고 읽기 어렵다	관심이 없다	믿을 수 없다
성별	남학생 (n=75)	35(46.7)	6(8.0)	10(13.3)	24(32.0)	0(0.0)
	여학생 (n=40)	15(37.5)	2(5.0)	4(10.0)	17(42.5)	2(5.0)
아버지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n=26)	11(42.3)	1(3.8)	3(11.6)	11(42.3)	0(0.0)
	대학교 졸업 이상 (n=89)	39(43.8)	7(7.9)	11(12.4)	30(33.7)	2(2.2)
어머니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n=27)	12(44.4)	1(3.7)	4(14.9)	10(37.0)	0(0.0)
	대학교 졸업 이상 (n=88)	38(43.1)	7(8.0)	10(11.4)	31(35.2)	2(2.3)
한 달 용돈	1만원 미만 (n=36)	18(50.0)	2(5.6)	4(11.1)	12(33.3)	0(0.0)
	1~2만원 미만 (n=21)	4(19.1)	3(14.3)	5(23.8)	8(38.0)	1(4.8)
	2만원 이상 (n=58)	28(48.2)	3(5.2)	5(8.6)	21(36.2)	1(1.8)
전체 (n=115)		50(43.4)	8(7.0)	14(12.2)	41(35.7)	2(1.7)

4.5 영양표시 인식 여부

영양표시에 관한 인식도 조사 결과는 <표 17>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성별($p < 0.05$), 어머니 교육정도($p < 0.05$), 한 달 용돈($p <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영양표시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읽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전체응답자는 448명(81.9%)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중 남학생은 234명(76.7%), 여학생 214명(88.4%)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영양표시에 대한 관심도가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읽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전체응답자는 99명(18.1%)이었으며, 그 중 남학생은 71명(23.3%), 여학생 28명(11.6%)의 응답을 나타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 3차년도(2009)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10~18세 청소년의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여부는 ‘읽지 않는다’가 66.1%, ‘읽는다’가 24.4%, ‘모른다’가 9.5%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영양표시 확인 비율은 남학생의 19.1%, 여학생의 30.4%가 ‘읽는다’라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확인 비율이 더 높아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어머니 교육정도에서는 어머니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영양표시를 ‘읽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달 용돈에서도 용돈이 많을수록 영양표시를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들이 영양표시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영양표시를 꼭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17> 영양표시 인식 여부

				N(%)
항 목		있다	없다	χ^2 -value
성별	남학생 (n=305)	234(76.7)	71(23.3)	12.479*
	여학생 (n=242)	214(88.4)	28(11.6)	
아버지 교육정도	고졸 이하 (n=95)	74(77.9)	21(22.1)	1.245
	대졸 이상 (n=452)	374(82.7)	78(17.3)	
어머니 교육정도	고졸 이하 (n=100)	74(74.0)	26(26.0)	5.154*
	대졸 이상 (n=447)	374(83.7)	73(16.3)	
한 달 용돈	1만원 미만 (n=170)	127(74.7)	43(25.3)	8.686*
	1~2만원 미만 (n=82)	69(84.1)	13(15.9)	
	2만원 이상 (n=295)	252(85.4)	43(14.6)	
전체 (n=547)		448(81.9)	99(18.1)	

* $p < 0.05$

4.6 영양표시 확인 이유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18>과 같다. 전체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186명(41.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100명(22.2%), ‘식품포장지에 새로운 것이 있어서 호기심에’ 83명(18.4%), ‘체중관리를 위해서’ 63명(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선미(2006)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나 양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영양표시에 관한 노영화(1998)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식품의 영양표시를 이용하는 목적이 개인의 건강관리(55.2%), 식품의 품질향상(23.9%), 체중관리(11.8), 식품의 비교(6.9%)등으로 나타나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 보다는 건강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8> 영양표시 확인 이유

		N(%)				
항 목	체중관리	영양소 확인	건강관리	호기심	타회사와 비교	
성별	남학생 (n=234)	28(12.0)	110(47.0)	52(22.2)	40(17.1)	4(1.7)
	여학생 (n=216)	35(16.2)	76(35.2)	48(22.2)	43(19.9)	14(6.5)
아버지 교육정도	고졸 이하 (n=74)	11(14.9)	34(45.9)	14(18.9)	10(13.5)	5(6.8)
	대졸 이상 (n=376)	52(13.8)	152(40.4)	86(22.9)	73(19.4)	13(3.5)
어머니 교육정도	고졸 이하 (n=75)	7(9.3)	31(41.3)	18(24.0)	15(20.0)	4(5.4)
	대졸 이상 (n=375)	56(14.9)	155(41.3)	82(21.9)	68(18.2)	14(3.7)
한 달 용돈	1만원 미만 (n=128)	18(14.1)	57(44.5)	28(21.9)	17(13.2)	8(6.3)
	1~2만원 미만 (n=69)	8(11.6)	29(42.0)	16(23.2)	14(20.3)	2(2.9)
	2만원 이상 (n=253)	37(14.6)	100(39.5)	56(22.1)	52(20.6)	8(3.2)
전체 (n=450)	63(14.1)	186(41.3)	100(22.2)	83(18.4)	18(4.0)	

4.7 영양표시 미확인 이유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19>와 같다. 전체적으로 ‘영양표시에 관심이 없어서’ 41명(4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22명(22.7%), ‘영양표시가 너무 작거나 복잡해서’는 18명(18.5%), ‘영양표시를 이해하기 어려워’ 12명(12.4%), ‘영양표시가 없어서’ 4명(4.1%)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흔희(2005)의 연구에서는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 ‘영양표시에 관심이 없어서’, 장순옥 등(2008)의 연구에서는 ‘영양표시에 관심이 없고 너무 작아서 보지 않는다’를 높게 답하였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 박보령(2010)의 연구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가 51.7%, 천명숙(2010)의 연구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 42.3%, ‘이해하기 어렵다’ 26.8%의 순으로 나타나 학부모 또한 영양표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선미(2007)의 연구에서 교육 전에는 ‘영양표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도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으로 답하였으나, 교육 후에는 영양표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학생은 없었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 구매’가 높게 나타났다.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손재연(2008)의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생, 20대 이상 연령에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습관이 아닌 지식이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19> 영양표시 미확인 이유

		N(%)				
항 목	영양표시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너무 작거나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구매	
성별	남학생 (n=71)	3(4.2)	35(49.3)	12(16.9)	9(12.7)	12(16.9)
	여학생 (n=26)	1(3.8)	6(23.1)	6(23.1)	3(11.5)	10(38.5)
아버지 교육정도	고졸 이하 (n=21)	1(4.8)	6(28.6)	2(9.5)	5(23.8)	7(33.3)
	대졸 이상 (n=76)	3(3.9)	35(46.1)	16(21.1)	7(9.2)	15(19.7)
어머니 교육정도	고졸 이하 (n=25)	1(4.0)	11(44.0)	2(8.0)	2(8.0)	9(36.0)
	대졸 이상 (n=72)	3(4.2)	30(41.6)	16(22.2)	10(13.9)	13(18.1)
한 달 용돈	1만원 미만 (n=42)	1(2.4)	19(45.2)	6(14.3)	5(11.9)	11(26.2)
	1~2만원 미만 (n=13)	1(7.7)	5(38.5)	3(23.0)	2(15.4)	2(15.4)
	2만원 이상 (n=42)	2(4.8)	17(40.5)	9(21.4)	5(11.9)	9(21.4)
전체 (n=97)	4(4.1)	41(42.3)	18(18.5)	12(12.4)	22(22.7)	

4.8 영양표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

영양표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20>과 같다. 점수는 ‘반드시 고려한다’ 5점, ‘대체로 고려하는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고려하지 않는다’ 2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1점으로 부여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제품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3.82 ± 0.80 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3.81 ± 0.82 , 여학생 3.83 ± 0.79 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제품선택 시 타제품과 쉽게 비교 된다’는 전체 3.79 ± 0.79 이며 남학생 3.80 ± 0.80 , 여학생 3.77 ± 0.77 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영양지식이 향상 된다’는 전체 3.82 ± 0.87 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3.83 ± 0.89 , 여학생 3.822 ± 0.84 로 나타났고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자신의 건강에 필요한 식품 선택이 용이해진다’는 전체 4.00 ± 0.84 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3.97 ± 0.88 , 여학생 4.04 ± 0.79 로 이 역시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영양표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식품선택의 용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소비자 영양지식의 향상, 제품의 질 향상, 타 제품과의 비교 가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간의 인식차이는 없었다. 대구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영양표시 이용실태 및 인식도를 조사한 이명숙(2008)의 조사에서 ‘영양표시가 건강에 필요한 식품선택이 용이해진다’는 항목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비율이 66.5%로 가장 높았으며, ‘제품 선택 시 타제품과 쉽게 비교 된다’는 항목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44.4%, ‘영양표시를 보면 영양지식이 향상 된다’는 항목에서는 ‘그저 그렇다’가 가장 높았다. ‘제품의 질이 향상 된다’는 항목에 대해서 ‘그저 그렇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표 20> 영양표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항 목 ¹⁾	전체 (n=547)	성별		t -value
		남학생 (n=305)	여학생 (n=242)	
제품의 질이 향상된다.	3.82±0.80	3.81±0.82	3.83±0.79	0.063
타제품과 쉽게 비교 된다.	3.79±0.79	3.80±0.80	3.77±0.77	0.258
영양지식 향상된다.	3.82±0.87	3.83±0.89	3.82±0.84	0.011
식품 선택이 용이해진다.	4.00±0.84	3.97±0.88	4.04±0.79	0.866

1) 5점 척도 :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1), 대체로 고려하지 않는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고려하는 편이다(4), 반드시 고려한다(5)

4.9 과자포장지의 영양표시에 대한 지식 조사

전체 응답자 547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영양표시에 관한 지식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 특정제품 포장지 뒷면에 있는 영양표시를 제시하고 표시내용의 설명에 대해 맞다/틀리다의 형식으로 체크하여 정답률과 오답률을 나타낸 것은 <표 21>와 같다. 정답률과 오답률을 살펴보면 ‘영양표시는 1봉지에 들어있는 열량과 영양소 함량이다’의 문항에서 전체 정답률 120명(21.9%), 오답률 427명(78.1%)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정답률 64명(21.0%), 오답률 241명(79.0%)을 나타냈고, 여학생은 정답률 56명(23.1%), 오답률 186명(76.9%)으로 나타났다. ‘이 식품의 한 봉지에는 260kcal의 2배의 열량이 포함되어 있다’의 문항에서 전체 정답률 267명(48.8%), 오답률 280명(51.2%)로 나타났다. 그 중 남학생은 정답률 147명(48.2%), 오답률 158명(51.8%)으로 나타났고, 여학생 정답률 120명(49.6%), 오답률 122명(50.4%)로 나타났다. ‘과자 한 봉지를 다 먹으면 단백질 3g을 섭취하게 된다’의 문항에서 전체 정답률은 203명(37.1%), 오답률 344명(62.9%)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남학생의 정답률은 118명(38.7%)이고 오답률은 187명(61.3%)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정답률은 85명(35.1%)이고 오답률은 157명(64.9%)로 나타났다. ‘과자 한 봉지를 다 먹으면 단백질 3g을 섭취하게 된다’에는 전체 정답률 203명(37.1%), 오답률 344명(62.9%)로 조사되었다. 그 중 남학생 정답률 147명(48.2%), 오답률 158명(51.8%)이며, 여학생 정답률 122명(50.4%), 오답률 120명(49.6%)로 나타났다. 또, ‘과자 1개를 먹으면 26g의 지방을 먹는 셈이다’에는 전체 정답률 312명(57.0%), 오답률 235명(43.0%)로 조사되었다. 그 중 남학생 정답률 172명(56.4%), 오답률 133명(43.6%)이며, 여학생 정답률 140명(57.9%), 오답률 102명(42.1%)로 나타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관계없이 ‘과자 1개를 먹으면 26g의 지방을 먹는 셈이다’에만 정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다른 항목들은 오답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영양표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고 결론을 낼 수 있으며,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이 매우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표 21> 영양표시에 관한 지식 정답률

항 목	N(%)					
	전체 (n=547)		성별			
			남학생 (n=305)		여학생 (n=242)	
정답	오답	정답	오답	정답	오답	
영양표시는 1봉지에 들어있는 열량과 영양소 함량이다.	120(21.9)	427(78.1)	64(21.0)	241(79.0)	56(23.1)	186(76.9)
식품의 한봉지에는 260kcal의 2배의 열량이 포함되어 있다.	267(48.8)	280(51.2)	147(48.2)	158(51.8)	120(49.6)	122(50.4)
과자 한 봉지를 다 먹으면 단백질 3g을 섭취하게 된다.	203(37.1)	344(62.9)	118(38.7)	187(61.3)	85(35.1)	157(64.9)
과자 1개를 먹으면 26g의 지방을 먹는 셈이다.	312(57.0)	235(43.0)	172(56.4)	133(43.6)	140(57.9)	102(42.1)

5.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교육여부와 교육의 필요성

학생들의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교육여부와 교육의 필요성은 <표 22>와 같다.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341명(62.3%),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206명(37.7%)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김나영 등(2009)의 연구에서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물 접촉 빈도에 대하여 초등학생의 59.0%가 ‘가끔 있다’고 하였으며, 29.5%는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정숙(2009)의 연구에서 영양표시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있다’에서 여자교사는 17.0%, 남자교사는 5.7%로 영양표시 교육경험에 대하여 교육자의 입장에 있는 교사의 경우에서도 매우 낮았다. 식품영양표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 6명(1.1%), 필요하지 않다 22명(4.0%), 그저 그렇다 78명(14.3%), 필요하다 256명(46.8%), 매우 필요하다 185명(33.8%)로 나타나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넘어 학생들이 영양표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식품영양표시 교육여부와 교육의 필요성

		N(%)		
항 목		전체 (n=547)	성별	
			남학생 (n=305)	여학생 (n=242)
교육여부	있다	206(37.7)	115(55.8)	91(44.2)
	없다	341(62.3)	190(55.7)	151(44.3)
교육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6(1.1)	4(66.7)	2(33.3)
	필요하지 않다	22(4.0)	16(72.7)	6(27.3)
	그저 그렇다	78(14.3)	47(60.3)	31(39.7)
	필요하다	256(46.8)	133(52.0)	123(58.0)
	매우 필요하다	185(33.8)	105(56.8)	80(43.2)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가공식품 구매행동과 선호도 및 식품표시와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고, 이들이 현명한 식품 구매활동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 5~6학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초등학생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설문에 참여한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 55.8%, ‘여학생’ 44.2%로 나타났고, ‘핵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75.9%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정도는 아버지, 어머니 ‘대졸 이상’이 각각 82.6%, 81.7%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직업으로는 ‘사무직’이 36.4%, 어머니 직업으로는 ‘서비스직’이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주일동안 다니고 있는 학원 수는 ‘1개’가 47.9%로 가장 많았고, 한 달 용돈은 ‘2만원 이상’이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초등학생들의 간식 섭취 횟수는 ‘하루 1회’가 43.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남학생($p<0.05$)일수록, 한 달 용돈($p<0.05$)이 많을수록 간식 섭취 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간식 섭취 시간대는 ‘학원가기 전’이 34.7%로 가장 높게 나왔고, ‘저녁에 야식으로’ 26.7%, ‘학원 마치고 집에 가기 전’ 20.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p<0.05$)일수록, 아버지 교육정도($p<0.05$)가 낮을수록 ‘저녁에 야식으로’ 간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을 섭취하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 71.9%, ‘습관적으로’ 13.9%, ‘영양보충을 위해’ 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즐겨먹는 간식으로는 ‘과자류’ 14.8%, ‘분식류’ 12.8%, ‘과일류’ 12.2%, ‘아이스크림류’와 ‘라면류’가 각각 9.5%, ‘음료류’ 9.3%, ‘우유 및 유제품류’ 7.9%, ‘빵·케이크류’ 7.2%, ‘즉석식품류’ 5.4%, ‘사탕·초콜릿류’ 5.0%, ‘패스트푸드류’ 3.7%, ‘차류’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남녀 학생 모두 ‘과일류’ 4.28 ± 0.863 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우유 및 유제품류’에서 남학생이 3.76 ± 1.005 로 여학생 3.59 ± 1.032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가공식품의 구매(섭취)빈도에서는 성별에 따라 남자는 과자류($p < 0.05$), 여자는 과일류($p < 0.05$)가 높게 나타났다. 가공식품을 이용하는 이유는 ‘맛이 좋아서’ 53.0%, ‘본인이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어서’ 17.0%,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구매 시 고려하는 사항은 ‘맛’ 4.28 ± 0.85 , ‘가격’ 4.27 ± 0.94 , ‘유통기한’ 4.04 ± 1.07 , ‘외관/모양’ 3.39 ± 1.11 의 순으로 나타나 영양성분 보다는 맛이 가공식품을 구입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외관/모양($p < 0.05$), 가격($p < 0.05$), 제조회사명($p < 0.05$), 광고($p < 0.05$)를 더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식품표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가 74.4%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 70.2%, 여학생의 경우 79.8%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인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식품표시 확인율은 ‘자주 확인 한다’ 39.5%, ‘가끔 확인 한다’ 24.9%로 아버지 교육정도($p < 0.05$)가 낮을수록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이유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51.9%로 가장 높았고,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5.5%, ‘가격, 중량 등 다른 회사의 제품과 비교하기 위해서’ 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매 한다’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식품표시에 관심이 없다’ 35.7%, ‘글자가 작고 읽기 어렵다’ 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5. 가공식품 구입 시 영양성분 표시의 내용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읽어본 적이 있다’ 81.9%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 76.7%, 여학생의 경우 88.4%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확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 < 0.05$). 어머니 교육정도($p < 0.05$)가 높을수록, 한 달 용돈($p < 0.05$)이 많을수록 영양표시를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43.1%로 1순위였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22.2%, ‘식

품포장지에 새로운 것이 있어서 호기심에' 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영양표시에 관심이 없어서' 42.3%로 가장 높게 높았고,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22.7%, '영양표시가 너무 작거나 복잡해서' 18.5%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영양표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실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영양표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에서는 '제품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3.82 ± 0.80 , '제품선택 시 타제품과 쉽게 비교 된다' 3.79 ± 0.79 , '영양지식이 향상 된다' 3.82 ± 0.87 의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영양지식에서는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6.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교육여부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가 62.3%로 나타났고, 식품영양표시 교육이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는 80.6%로 높게 나타나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초등학생 대부분은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맛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식품영양표시를 인식하고 있는 학생은 많았으나, 식품영양표시의 정보를 이해하거나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영양표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수준에 맞게 쉬운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올바른 식생활을 이끌기 위해서 활동 중심의 능동적인 참여, 단기간의 교육이 아닌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가공식품 구매나 섭취는 부모님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학부모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하면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강석아, 이정원, 김경은, 구재옥, 박동연(2004), 초등학생의 간식 구매실태 및 관련 생태학적 요인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9(4):453~463
 2. 강숙경(2010), 울산지역 중학생의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강연호(2008), 초등학생의 식품구매 실태 및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복자, 이경애(2000), 초등학생의 영양교육을 위한 식습관 및 영양지식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5(3), 201~213
- 국민건강영양조사(2009) 제 4기 3차년도
- 김나영, 이정숙(2009), 부산지역 주민의 연령별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실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8(12), 1801~1810
- 김남희(2001), 도시주부의 가공식품 구입행동 및 영양표시에 관한 인식 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순(2001),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중학생과 학부모의 인지도와 이용 실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선, 오세인, 장영애(2005), 시판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실태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 김은경, 한혜영, 박계월(1998), 급식학교에서의 영양교육이 아동의 영양지식, 식생활태도, 식습관, 식품 기호도 및 간식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양학회지, 30(10)
- 김은정(2002), 대구지역 주부들의 영양표시에 대한 이용실태 및 요구도,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훈(2002), 국내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시제도 발전전략 : 주요국의 현황 및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영화(1998), 식품영양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보호원
- 류경아(2008), 서울 일부지역 중학생들의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확인 및 이용실태,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맹영선, 허태련(2002), 식품과 건강. 122~148, 유한출판사
- 민지은(2008),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가공식품 구매행태와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보령(2011), 초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의 가공식품 이용실태와 영양표시제도의 인식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성(2007), 서울지역 중학생들의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진(2011), 대구시 어린이집 학부모의 식품영양표시제에 대한 인식도와 활용도 조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정(2008), 경기 북부지역 중학생의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이해 및 인지도와 이용실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옥희, 이경애(2008), 초등학생의 식생활관리 태도에 따른 식품구매 행동 및 식생활 소비자능력비교, 한국영양학회지, 41(4):353~364
- 박혜경(2009), 우리나라의 영양표시 정책, 식품산업과 영양, 14(2), 9~14
- 보건복지가족부(1994),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1994-28호
- 보건복지가족부(2008), 법률 제 8943호 (2008. 3. 21. 공포)
- 보건복지부(2005)
- 손재연(2008), 연령별 가공식품의 식품표시에 대한 이용실태와 인지도,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정민(2011), 식품영양표시 활용실태와 식생활 지침 실천 관련성 : 전라북도 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식품의약품안전청(2004), 영양표시 의무화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 식품의약품안전청(2005), A manual for food labeling standard
- 식품의약품안전청(2007),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 식품의약품안전청(2009),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2009. 8. 12개정
- 양시원(2011), 전북지역 고등학생의 간식섭취 실태와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애란(2011), 식품영양표시 활용실태와 식생활지침 실천 관련성 : 전라북도 지역

-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미란(2005), 중학생의 식품선택 및 식품구매 실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승희(2010),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스트레스와 식습관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5(4):498~506
- 유선정(2011), 용인지역 일부 초등학생들의 가공식품 구매와 식품영양표시 이용 실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옥경, 박수희, 차연수(2007), 전주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남·여학생의 식습관 및 식행동, 영양지식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2(6):665~672
- 윤금란(2006), 영남지역 일부 초등학생의 식습관, 영양섭취상태와 인성 특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혜, 허은실, 우태정(2005), 초등학교 고학년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활동중심의 영양교육 교재 및 영양교사용 지침서 개발,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 이기완, 이희선, 이민준(2005), 초등학생의 군것질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5(5):596~602
- 이명숙(2008), 대구지역 중학생들의 식품 영양 표시 이용실태 및 인식도 조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선, 정진은, 강명희, 신동순, 정혜경, 장문정, 김양하, 김혜영, 김우경(2008), 영양과학, 581~586, 지구문화사
- 이소희(1999), 청소년들의 가공식품 구매 행위,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민(2011), 경남 일부 중학생의 가공식품 이용 및 식품영양표시 인지 현황 : 성별 및 용돈 액수에 따른 비교,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2009),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의 가공식품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4(4):430~440
- 이지원, 이희승, 장남수, 김지명(2009), 영양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교 아동의 영양지식 점수와 식행동, 식이섭취 및 신체 지표와의 관련성, 한국영양학회지, 42(4):338~349
- 장순옥, 이옥희, 이경실(2008),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가공식품 섭취와 영양표시

교육의 효과, 대학지역사회 영양학회지 14(2):166~175

정자용, 김미진(2007), 서울지역 일부 성인여성의 영양표시 이용실태와 이해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학지역사회영양학회지, 12(4): 417~425

정하정(2012), 대구지역 초등학생의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 및 간식섭취 실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흔희(2005), 고등학생의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이해와 이용실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순덕, 김서영, 이은주, 박혜경, 김명철, 김건희(2008),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마크 개발연구,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03(1):5~12

조은아, 이수경, 허규진(2010), 시흥지역 초등학생의 간식섭취 실태 및 간식관련 영양지식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5(2):169~179

조정희(2008), 대구지역 중학생들의 가공식품 이용실태와 영양표시 인식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명숙(2010),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 및 이용실태, 대구한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현정, 서정숙(2003), 비만아동의 영양소 섭취실태, 비만관련 요인과 영양교육효과,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8(4)

한국소비자원(2009), 과자류의 트랜스지방 등 함량 및 영양표시실태 조사보고서,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소비자안전센터

현선미(2006), 영양표시 읽기 교육을 통한 초등학생의 식생활 태도 개선,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선미, 김정원(2007), 영양표시읽기 교육을 통한 초등학생의 식생활 태도 개선,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제 12권 제 2호, 168~177, 대한지역

황경아(2010), 초등학생의 식습관 및 영양표시제의 이해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Preference of Processed Foods and Awareness on Food Nutrition Label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ome Areas of Jeju

Seon-Ah Kim

Department of 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a basic resource of nutrition education needed for selecting processed foods in the future by finding out the preference of processed foods and the awareness on food nutrition label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ome areas of Jeju.

A survey was conducted on 547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5th~6th grade located at Jeju 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ctober 2013, and the surveyed data were statistic analyzed using the SPSS 18.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1. 75.9%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part of a nuclear family, 80.0% of them had parents with high level of education of 'college graduate and higher', and as for monthly allowance, '20 thousand won or more' were the most common showing 53.9%.

2. Most students ate snacks '1 time' a day, and the reasons for eating snacks were in the order of 'because of being hungry' 43.1%, 'habitually' 13.9%, and 'for nutrition supplement purposes' 10.4%.

3. Preferred processed foods were in the order of 'fruits' 4.28, 'ice creams' 4.16, 'Korean flour based snacks' 4.11, 'beverages' 3.95, 'ramens' 3.92, and 'candies/chocolates' was the lowest showing 3.52. As for 'milk and dairy products', differences were shown that male students 3.76 preferred them more than female students 3.59. As for reasons of eating processed foods, 'because they are tasty' was the highest being 53.0%, and 'being able to eat whatever' showed 17.0% of the responses, and nutritious reasons were low taking up 2.9%. Considerations when buying processed foods were highest for 'taste', followed by 'price' and 'expiration date'.

4. The rate of checking food labeling was 77.0% which was fairly high, and reason for checking was the highest for 'to check the expiration date' at 51.9%, and reason for not checking was high for 'buying without thinking' at 43.4%

5. In terms of awareness on nutrition labeling, 81.9% was aware of nutrition labeling, and as for reason for checking nutrition labeling, 'to check what kind of nutrients are contained' was high at 41.3%, and as for reason for not checking nutrition labeling, 'not interested in nutrition labeling' was high at 42.3%.

6. While the reliability on the food nutrition labeling was high, the understanding and satisfaction were shown to be low, and most students were shown to have not received any education regarding food nutrition labeling, and 80.0% of the students answered that they feel the need for such

education which indicated high perceptions on the need for education.

Due to the changes in social and familial environments, elementary school students became purchasers who directly select and decide foods. Although it is important to possess the ability to properly understand the contents of food nutrition labeling, but systematical education related to food nutrition labeling is not taking place. Practice-centered systematical and continuous education to help students, who are independent consuming subjects, deviate from habitually and spontaneously purchasing processed foods without thinking and buy food through checking food nutrition labeling, should take place. If food nutrition labeling education is well conducted and students come to understand and utilize the food nutrition labeling described on processed foods, the effectiveness of the food nutrition labeling education in everyday, life is thought to be great.

부 록

<부록 1> 설문지

제주 일부지역 초등학생의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 조사(초등학교 고학년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초등학생의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초등학생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본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3년 10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김 선 아

◎ 가공식품이란?

식품의 원료인 농·축·수산물의 특성을 살려 보다 맛있고 먹기 편한 것으로 변형시키는 동시에 저장성을 좋게 한 식품(과자, 빵, 라면, 아이스크림, 햄, 어묵, 과일음료 등)

I. 일반사항

1. 학생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현재 살고 있는 가족형태는?

- ① 대가족(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형제자매 등)
- ② 핵가족(부모님, 형제자매)
- ③ 한부모가족(부모님 중 한분만 같이 살 경우)
- ④ 조부모가족(할아버지, 할머니와 살 경우, 부모님은 같이 살지 않음)

3. 부모님의 교육정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4. 부모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① 생산직, 기능직(농·임·수산업, 생산직 근로자, 기능공 등)		
② 서비스직(이·미용업, 음식·숙박업, 세탁업 등)		
③ 영업직, 판매직(보험, 도·소매업 등)		
④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등)		
⑤ 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교사, 교수, 예술가 등)		
⑥ 전업주부		
⑦ 무직		

5. 학생이 현재 일주일동안 학원에 다니고 있는 수는?

- ① 1개 ② 2개 ③ 3개 이상 ④ 다니지 않는다

6. 학생의 한 달 용돈은 얼마 정도입니까?

- ① 1만원 미만 ② 1~2만원 미만 ③ 2~3만원 미만 ④ 3만원 이상

II. 간식섭취 실태

1. 하루에 간식은 몇 번 섭취합니까?

- ① 거의 안 먹는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⑤ 일정하지 않다

2. 간식을 먹는 시간대는 주로 언제입니까?

- ① 아침등교 시간 ② 점심시간 ③ 학원가기 전
 ④ 학원 마치고 집에 가기 전 ⑥ 저녁에 야식으로 ⑦ 기타()

3. 간식을 섭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배가 고파서 ②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③ 습관적으로
 ④ 영양보충을 위해서 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⑥ 기타()

4. 평소 즐겨먹는 간식 식품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 ① 빵, 케이크 ② 과자류 ③ 즉석식품(김밥, 샌드위치 종류) ④ 아이스크림
 ⑤ 과일류 ⑥ 우유 및 유제품 ⑦ 분식류(핫도그, 떡볶이, 튀김, 순대 등)
 ⑧ 사탕, 초콜릿 ⑨ 음료(청량음료, 과일주스 등) ⑩ 라면(컵라면)
 ⑪ 차류(커피, 울무, 코코아) ⑫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종류)

III. 가공식품 구매실태 및 섭취현황

1. 각 식품의 선호하는 정도 (해당되는 사항에 √표 해주세요.)

	매우 좋아함	좋아함	보통	싫어함	매우 싫어함
① 빵, 케이크					
② 과자류					
③ 즉석식품(김밥, 샌드위치 종류)					
④ 아이스크림					
⑤ 과일류					

⑥ 우유 및 유제품					
⑦ 분식류(핫도그,떡볶이,순대 등)					
⑧ 사탕, 초콜릿					
⑨ 음료(청량음료, 과일주스 등)					
⑩ 라면(컵라면)					
⑪ 차류(커피, 울무, 코코아)					
⑫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종류)					

2. 각 식품의 섭취 횟수 (해당되는 사항에 √ 표를 해주세요.)

	거의 매일	3~4회 /주	1~2회 /주	2~3회 /월	월 1회 이하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
① 빵, 케이크						
② 과자류						
③ 즉석식품 (김밥, 샌드위치 종류)						
④ 아이스크림						
⑤ 과일류						
⑥ 우유 및 유제품						
⑦ 분식류 (핫도그, 떡볶이, 순대 등)						
⑧ 사탕, 초콜릿						
⑨ 음료 (청량음료, 과일주스 등)						
⑩ 라면(컵라면)						
⑪ 차류 (커피, 울무, 코코아)						
⑫ 패스트푸드 (햄버거, 피자 종류)						

3. 위의 가공식품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격이 저렴해서 ② 구입방법이 편해서 ③ 저장 및 보관이 편리해서
 ④ 맛이 좋아서 ⑤ 영양적으로 우수해서 ⑥ 부모님이 만들어주지 않아서
 ⑦ 본인이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어서 ⑧ 시간이 절약되어서 ⑨ 기타()

- ③ 가격, 중량 등 다른 회사의 제품과 비교하기 위해서
- ④ 원산지 확인하기 위해서
- ⑤ 조리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4.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매 한다
- ② 식품표시를 보아도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다
- ③ 식품표시를 위한 글자가 너무 작고 읽기 어렵다
- ④ 식품표시에 관심이 없다
- ⑤ 식품표시 사항을 믿을 수 없다

◎ 가공식품의 포장지에 표기하는 식품표시 중에서 그 식품의 영양정보(열량 및 영양소 함량)를 표시한 것을 “**영양표시**”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식품 또는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영양정보를 표시한 것으로 영양표시를 확인하면 그 제품의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공식품 포장지의 영양표시 예입니다. 살펴본 후에 다음질문에 답해주세요.

영양성분 1회 제공량 1병(210ml) 1회 제공량당 함량·열량 95kcal. 탄수화물 20g(6%)·당류 20g. 단백질 2g(3%). 지방 0.5g(1%)·포화지방 0g(0%)·트랜스지방 0g. 콜레스테롤 0mg(0%). 나트륨 30mg(2%). 비타민C 60mg(60%) *안의 수치는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임

5.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위와 같은 영양표시를 한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6번으로)
- ② 없다 (7번으로)

6. 영양표시를 읽어본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체중관리를 위해서
- ②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 ③ 건강관리를 위해서
- ④ 식품포장지에 새로운 것이 있어서 호기심에

⑤ 다른 회사 제품의 영양표시와 비교하기 위해

7. 영양표시를 읽어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영양표시가 없어서
- ② 영양표시에 관심이 없어서
- ③ 영양표시가 너무 작거나 복잡해서
- ④ 영양표시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 ⑤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8. 영양표시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해주세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제품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② 제품 선택 시 타제품과 쉽게 비교된다.					
③ 영양지식이 향상된다.					
④ 자신의 건강에 필요한 식품선택을 용이하게 한다.					

9. 다음은 어떤 과자 포장지의 영양표시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고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성분		
1회 제공량 1개(50g)		
총 2회 제공량(한 봉지, 100g)		
	1회 제공량당 함량	%영양소기준치
열 량	260kcal	
탄수화물	33g	10%
당 류	3g	
단 백 질	3g	5%
지 방	13g	26%

